경남도, 자금난 겪는 中企에 3300억 규모 육성자금 지원

경영안정·시설설비·특별자금
평가지표 따른 정량평가 진행
기업 금융 부담 개선 위한 노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상남도가 고금리 상황 속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 시설설비자금 1750억원, 특별자금 300억원 등 총 3300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은 일반 신규대출자금 500억원과 대환대출자금 750억원이며, 시설설비자금 1750억원은 건축·임차자금 880억원과 매입자금 87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자금은 지난 1월 18일부터 조선, 항공우주, 원자력 등 주력 산업과 비제조 산업 지원 등 10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내외 정세에 따른 수출 기업 애로 해소와 도내 방위산업 업황을 위해 이번 3분기에 수출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과 방위산업 육성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평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2분기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평가 방식을 도입했으며, 3분기부터 시설설비자금에도 확대 적용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기업 수요를 꾸준히 파악해 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금융 부담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844개사, 5758억원을 지원해 고금리와 내수 부진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백운산자연휴양림, 전남 추천관광지 선정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등 갖춰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전라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쉼이 있는 여행' 테마 전라남도 7월의 추천관광지에 선정됐다.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식물생태숲, 황톳길 등을 갖춘 현대인들의 쉼터다.

특히, 치유의숲은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와 봉황, 돼지, 여우 등 백운산에 깃든 삼정 스토리를 살린 '치유의 숲길'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백운산 치유의숲 센터는 2층 규모로 세미나실, 건강측정실, 명상·요가실, 힐링테마다실(족욕장), 아로마테라피실, 피톤치드 카페, 일광욕장 등을 두루 갖췄다.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 가족, 직장인 등 대상과 직군에 따라 내·외부프로그램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구성됐다.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며 나무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동백공방, 매화공방 등 수준별 목공체험장과 나무상상 놀이터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 조성된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도 취향과 낭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쉼과 힐링을 선사한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광주온' 설문 통해 27건 정책 반영

시민소통채널 온라인 플랫폼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변경 등 진행

광주시가 시민소통채널 온라인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27건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1일기준 총 38차례 '광주온(ON)'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뭄 대책·물 절약 실천 관련 의견수렴'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 변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등의 설문이 진행됐으며 이 중 27건의 설문조사 결과가 광주시 정책에 반영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명칭은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바뀌었으며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현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광주', 어등산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천터미널 일대에 '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등 3대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의 베스트10 우수정책' '광주맛집' 선정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풍경.

하동군, 하동읍 3곳 공원화 사업 추진

폐철도, 군민정원, 하동공원 대상

하동군이 하동읍 시가지 내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주민 휴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동읍 공원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폐철도와 하동군청 군민정원, 하동공원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3곳을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하동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먼저 군은 하동군청 주차장을 활용, 하동의 상징을 담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군민정원'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민정원은 컴팩트 매력도시를 이어가는 중심 역할로서 하동의 자연, 역사 문화를 중점으로 군민 소통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동읍폐철도는 덕천빌딩~섬진철교의 약 800m 구간에 높낮이 차를 낮추는 '하동읍 폐철도 공원 기본구상'도 계획하고 있다. 주변 지역과 높낮이 차에 따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단절하고 있어 평탄화를 통해 도심 경계를 허물고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하동공원도 동선 계획을 수정하고 기존 자원들과 조화로운 배치 계획을 재수립해 하동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여수시민 59% "불꽃축제 장소변경 원해"

최적지로 소호요트경기장 등 꼽아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축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7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개최에 따른 중앙동 일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이순신광장에 집중된 행사로 거주민들의 피로감 호소, 기존 개최 장소의 해상 활용 공간 협소 등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9%가 불꽃축제 개최 장소에 대해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고, 최적지로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 ▲여수세계박람회장 앞 해상, ▲신월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 해상 순으로 꼽았다.

또한 개최 장소 특화 관련으로는 1개 장소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 2개 장소로 순회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개최 주기는 매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81%, 격년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7%로 집계됐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지역 이모저모

신안군

박향란 첫 여성 신의면장 발령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 최초 여성 면장이 탄생했다.

신안군 여성 면장 1호로 기록될 박향란 신의면장은 신의면 출신으로 1992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다문화가족센터장과 홍보팀장, 신의면부면장에 이어 이번에 면장으로 발령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간 업무 과정에 겪어본 박향란 신의면장에 대해 여성의 섬세함과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했던 직원으로 평가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광주시

당직근무제 38년 만에 폐지

광주시가 직원들의 당직근무제를 38년 만에 폐지한다.

기존에는 5급 이하 직원들이 부서 업무를 수행한 뒤 3인 1조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업무를 수행했다.

당직근무는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 운영되며 전담인력이 대신한다. 광주시는 재난안전실 인력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3인 1조 형태로 24시간 근무 뒤 이틀 휴식 방식으로 당직민원과 재난대응 업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당직민원 처리를 위해 KT와 협업해 인공지능(AI) 당직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양수녕 기자

순천시

동천하구 농경지, 습지 복원 박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순천 동천하구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다. 그러나 하천부지의 농경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활동이 하천 생태계 오염을 심화시키고, 습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시는 '순천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양산시

5400만원 투입해 손주돌봄 지원

양산시가 총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